

다쏘시스템, CST 전자기 시뮬레이션 기술 통합으로 시물리아(SIMULIA) 기능 강화

- 스마트 오브젝트의 생성 및 설계 위한 최상급 다중 물리 시뮬레이션 솔루션 제공
- 전자기 방해로 인한 사물인터넷 기기의 성능 및 안전성 저하 방지

서울, 2015 년 5 월 26 일 - 3D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다쏘시스템(www.3ds.com)이 CST 스튜디오 스위트(CST STUDIO SUITE®)의 개발업체인 CST (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, Computer Simulation Technology AG)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하고, CST 의 3D 전자기 시뮬레이션 기술을 자사의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이번 파트너십으로 하이테크, 자동차, 항공, 산업장비 등 다양한 분야의 다쏘시스템 고객들은 스마트 오브젝트의 생성 및 설계를 위한 최상급의 다중 물리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. 또한 2020 년까지 약 260 억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사물인터넷(IoT) 기기의 연결성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. 넓은 주파수 범위에서 장치의 기능을 시뮬레이션하는 전자기 동작 모델을 생성 및 분석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드라이브트레인(drivetrains) 및 웨어러블 전자제품의 다중 물리 문제를 해결하며, 사물인터넷 기기 간 전자기 방해로 인한 성능 및 안전성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.

CST 와의 파트너십은 독일 베를린에서 지난 19 일 열린 28 번째 시물리아 커뮤니티 컨퍼런스(SIMULIA Community Conference)에서 공개됐다. 본 컨퍼런스는 업계를 선도하는 시뮬레이션 사용자 및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들이 모여 최신 시뮬레이션 기술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.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시물리아 사용 고객들이 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한 시뮬레이션 확장, 데이터 관리 및 협업, 최적화, 피로 및 내구성 관리, 다물체 동역학 등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통한 시뮬레이션 기술 구현을 선보였다.

스콧 버키(Scott Berkey) 다쏘시스템 시물리아(SIMULIA) CEO 는 “CST 는 고주파 및 저주파 전자기 시뮬레이션 기술의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. 이는 스마트 기기 및 전기 기계 제품을 비롯한 다쏘시스템의 다양한 시스템의 개발에 필수적이다”라며 “다쏘시스템은 강화된 시물리아의 선도적인 기술을 통해 고객들에게 혁신을 가속화하는 경쟁력을 제공하고 시뮬레이션의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”고 말했다.

베른하르트 바그너(Bernhard Wagner) CST 이사는 “다쏘시스템과 CST 는 고객들에게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R&D 에 아낌없이 투자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”면서

“다쏘시스템의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 CST 의 전자기 시뮬레이션 기술과 결합해 사실적 시뮬레이션의 업계 표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시뮬리아 커뮤니티 컨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<http://www.3ds.com/events/simulia-community-conference/overview/> 에서 확인 가능하다.

###

다쏘시스템에 대하여

3D 익스피리언스 회사인 다쏘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가상 세계를 비즈니스와 사람들에게 제공한다. 전세계를 선도하는 다쏘시스템의 솔루션은 제품의 디자인, 생산 및 서비스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. 다쏘시스템의 협업 솔루션은 현실세계를 개선하기 위한 가상세계의 가능성을 확장하고, 사회적 혁신을 촉진한다. 다쏘시스템은 140 개 이상의 국가에서 다양한 산업계의 190,000 이상의 고객사에게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.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<http://www.3ds.com>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